

타이, 한국산 PA 반덤핑 취소

저가수입 불구 타이산업 피해 없어 ... Continental은 피해

타이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디아에서 수입되는 PA(Phthalic Anhydride)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타이 일간지인 방콕 포스트지 인터넷판에 따르면, 타이 상무부는 한국 등 3개국으로부터 무수프탈산이 저가에 수입됐지만 타이 시장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다만, 반덤핑 청원을 낸 타이 유일의 PA 생산기업인 Continental Petrochemical에는 피해가 갔다는 점은 인정했다.

타이에서는 플라스틱 가소제나 알키드수지, 색소(페놀프탈레인), 염료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무수프탈산 생산이 부족한 상태이다.

<Chemical Journal 2003/08/08>